

## 인지부조화의 발생에서 문화 차이의 의미: 태도 중요도의 역할\*

윤 상 연      서 신 화      김 현 정      허 태 균<sup>†</sup>  
고려대학교

인지부조화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약하게 발생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최근에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타인과 관련된 상황이나 규범준수와 관련된 상황 등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인지부조화가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이나 기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한 속성인 중요도(importance)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문화적 가치성향이나 태도 대상의 특성을 초월하여, 인지부조화와 태도변화에서 태도 중요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6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4주 전에 개인주의-집단주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들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확인된 개인적 선택, 타인을 위한 선택, 규범적 선택의 상황에서 자유선택 패러다임(free-choice paradigm)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인지부조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선택대안에 대한 태도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택의 상황에 상관없이 태도변화가 발견되어 인지부조화는 개인의 문화적 가치성향보다 태도 중요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지부조화의 문화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실질적인 적용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지부조화, 문화적 가치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태도 중요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838).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태도(attitude)란 태도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적이고 생리적인 준비상태로 경험을 통해 조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Allport, 1935). 태도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특정한 반응 양식 또는 자세를 의미한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은 오히려 그 역설적 인과관계를 통해 증폭되었다. 행동에 의해 태도가 결정된다는 인지부조화 이론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거의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일부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지부조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경험된다는 발견들을 통해 그 보편성이 한때 위협받았다(Heine & Lehman, 1997).

최근 동양 문화에서도 특수한 조건, 즉 타인을 위한 선택(Hoshino-Browne, Zanna, Spenser, Zanna, & Kitayama, 2005)이나 규범적 태도인 경우(허태균, 2005)에는 강한 인지부조화가 경험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방법을 통해서 실제 인지부조화의 문화적 차이를 확인한 연구들은 다수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일어나는 기제로 태도 중요도(importance)의 역할을 제안하고 확인하였다.

### 인지부조화이론

행동이 태도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지부조화 이론이 제안되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와 반대

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부조화 상태에 놓일 경우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각성에 빠지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경험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하려 한다고 제안한다(Festinger, 1957). 인지부조화 이론에서의 부조화란 개인들이 경감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긴장상태로 인지부조화는 인지(개인의 신념, 생각, 가치 등), 행동 혹은 환경적 요소들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개인은 부조화에 의해 생성된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신념, 태도 혹은 행동을 변화시킨다(Harris & Tamler, 1971).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 행동에 맞게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기본적으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 지각(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이 기본적인 심리적 사건이고, 이러한 불일치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는 조건들을 찾는 것이 인지부조화 연구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몇몇 연구 결과들을 통해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부조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Cooper & Fazio, 1984), 우선 자신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이미 취해진 행동을 취소할 수 없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Collins & Hoyt, 1972; Goethals & Cooper, 1972).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인지부조화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Cooper & Brehm, 1971). 이처럼 최초로 태도

변화의 동기적 기제를 제안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인지부조화 이론은 인지적 심리기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발전되어왔다.

#### 인지부조화 현상의 문화차

약 40년간의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지부조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주제가 연구되었다고 여겨지던 1990년대에, 일부 비교문화연구가 인지부조화의 문화 차이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즉, 인지부조화 현상이 동양인들에게는 약하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다(Heine & Lehman, 1997).

이에 대해 동양 문화권에서는 분석적인(analytic) 사고 처리보다는 전체적인(holistic) 사고 처리에 기반하고 있어, 모순적인 상황에서의 불편감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인지부조화를 덜 경험한다는 설명이 제안되었다(Peng & Nisbett, 1999; Suh, 2002). 또한, 인지부조화는 개인의 행동을 상황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에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는 동양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에서, 인지부조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불충분한 정당화(insufficient justification)가 약해서 인지부조화를 덜 경험한다는 주장도 제안되었다(Choi & Nisbett, 1998; Hiniker, 1969).

실제 일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부조화 연구를 보면 타인의 존재를 떠올리게 했을 경우에 인지부조화가 발생했다(Kitayama, Snibble, Markus, & Suzuki, 2004). 이와 유사하게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는 서양인들에 비해 동양인들이 인지부조화를 적게 느끼지만 친구를 위한 선택에서는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이 더 큰 인지부조화를 경험했다(Hoshino-Browne et

al., 2005).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인지부조화가 단지 개인의 내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리내적 사고과정을 초월하여 개인이 불일치를 경험하는 상황자체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인지부조화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사고과정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보게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동양인들에게는 인지부조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동양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지부조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부조화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Hoshino-Browne et al., 2005; Kitayama et al., 2004).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존의 심리학자들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가치, 독립적-의존적 자기관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인지부조화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려 했다.

문화를 구분하는 다양한 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집단주의-개인주의 구분(Hofstede, 1980)에서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스스로를 자신이 속한 집단(가족, 공동체, 국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주로 집합체에 의해 부과된 의무나 규범에 의해 동기화되고,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가 우선되며, 집단 성원들과의 연계성이 강조된다. 반면에 개인주의는 개인을 집단과 독립적으로 여기고 자신의 선호, 욕구, 권리 등이 동기화되며,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한다(Triandis, 1995). 따라서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를 가족과 같은 사회관계로 보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계중심적이고 상황의존적인 사안들이 중요하게 된다.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나 상황과 유리된 개인중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둔다.

또한, 행동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서구의 문화와 달리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개인의 내적 특성보다는 그가 맡은 사회적 역할, 의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역할이나 규범에 대한 태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며, 따라서 그 처리에 있어서 더 많은 인지적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이나 규범준수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불일치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지각하고 인지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 서구에 비해 동양에서 더 강한 부정적 감정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Hur, Roese, & Namkoong, 2009).

더 나아가 문화가치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개인의 자기관도 인지부조화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도 있다. 자신의 태도와 신념, 가치 등과 같은 자기관이 있어야만 이에 반하는 불일치의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관에 따라 불일치 지각 상황, 불편감 경험 조건, 인지부조화의 발생여부 및 인지부조화의 경험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음이 주장되어왔다(Bem & McConnell, 1970). 같은 맥락에서 문화에 따라 자기규준(self-standard)이 다르며, 자기규준과 행동과의 차이에 의해서 불편감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있다(Cooper, 2007).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인지적인 불일치, 그리고 감정적인 불편감은 그 사람이 가진 개인적 또는 문화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다. 따

라서, 어떤 학생이 만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버스에 오른 경우 노인에게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미국의 학생보다는 한국의 학생이 보다 클 것이다. 이러한 불편감은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장유유서의 문화가치에 의해 발생되며 이러한 문화가치의 토대 위에서 자기를 형성한 개인이 이를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자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 최근의 몇몇 비교문화 연구들은 인지부조화 현상이 실제로 각 문화의 자기관에 의해서 영향 받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주의 문화가치와 집단주의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독립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의 역할로 동양과 서양의 인지부조화 발생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되어 왔다(Hoshino-Browne et al., 2005; Kitayama et al., 2004).

#### 인지부조화와 중요도

인지부조화의 문화 차이를 집단주의나 개인주의와 같은 문화가치 성향이나 독립적-의존적 자기관으로 설명하는 주장은 매우 직관적이면서 문화차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차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실험참가자들을 비교하여 얻은 단순한 현상에 가깝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사회적 관계와 규범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타인을 위한 선택이나 규범적 태도 변화와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해보이지만, 그 연결이 어떤 심리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는 규명된 적이 없다.

집단주의-개인주의와 같은 문화가치 성향이 인지부조화 과정과 연결되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에 그 개념적 관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른 심리적 기제를 매개한 문화가치 성향의 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가치 성향에 따라 관련되는 태도에 대한 특정 속성이 차이가 나서, 그 속성의 역할에 따라 인지부조화가 달라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기적인 인지부조화 이론과 인지적인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은 한동안 대립되는 관점으로 이해됐지만, 지금은 태도의 강도와 접근가능성 등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통합되었다. 즉 강한 태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동에 따른 태도변화를 인지부조화로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지각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대 사회심리학의 관점이다(Bem, 1972).

그동안 비교문화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동, 가치영역에 있어서 인지부조화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지부조화의 발생기제에 있어서 문화적 자기관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서 태도의 중요성(attitude importance)이라는 요소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지부조화에 있어서 중요도의 역할은 이미 Festinger(1957)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 그는 부조화의 크기(dissonance magnitude)를 결정하는 요소로 인지의 중요도(the importance of cogni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후 연구들에서도 부조화의 감소를 위한 합리화 전략으로 중요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들로 발전하였다(Blanton, Pelham, Dehart, & Carvalho, 2001; Simon,

Greenberg, & Brehm, 1995). 하지만 인지부조화의 문화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도 중요도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태도 중요도는 태도의 강도와 관련된 속성들 중 하나로, 타당도에 대한 확신과 같이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인식에 해당한다. 여기서 태도강도(attitude strength)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심이냐주의를 두는지를 의미한다(Krosnick, 1988). Boninger, Krosnick, 및 Berent(1995)는 태도 중요도가 태도와 속성(높은, 중간수준의, 혹은 낮은 심리적인 중요성)을 연합시키는 신념(belief)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Fishbein & Ajzen, 1975),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태도를 정보처리, 의사결정, 행동수행 과정에 더 널리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태도의 중요도는 사고과정(deliberative processing, Fazio, 1990) 뿐만 아니라 자동적인 정보처리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Boninger et al., 1995). 따라서 어떤 태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태도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기억하는 정보량도 많아진다(Holbrook, Berent, Krosnick, Visser, & Boninger, 2005). 또한 특정 태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고,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Abelson, 1988).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태도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Key, 1961; Modigliani & Gamson, 1979; Petty, Cacioppo, & Haugtvedt, 1991). 첫째, 어떤 태도

가 권리나 라이프스타일 같이 본인의 이익(self-interest)과 관련된 경우, 둘째, 참조집단과의 사회적 동일시(social identification)와 관련된 경우, 셋째, 태도가 근본적인 사회적 또는 개인적 가치(value)와 연관된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특정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태도들은 높은 중요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 가치 성향 자체가 인지부조화에서 문화 차이를 직접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 가치 성향과 일관된 내적 태도들의 중요도를 높여서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적 성취, 고유성, 취향 등과 관련된 태도들에서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고, 동양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관계적 조화, 평가, 의무 등과 관련된 태도에서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태도 중요도라는 두 가지 변인이 인지부조화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기존의 논문들에서 인지부조화의 문화 차이를 연구했던 세 가지 조건(개인주의: 본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본인 조건, 집단주의: 사회적 동일시와 관련 있는 친구 조건, 규범: 가치와 관련 있는 교통법규 조건)을 설정하고, 문화 가치 성향과 태도 중요도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 방 법

### 실험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총 60명의 학부생들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온라인 공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실험참가의 대가로 3천원의 보상을 받았다.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전에 온라인을 통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 완료 사실이 확인된 참가자들은 본인 조건, 친구 조건, 교통법규 조건의 세 가지 인지부조화 발생 조건에 각각 20명씩 무선 할당되었다.

### 측정도구

####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성향 측정

본 연구에서는 Singelis, Triandis, Bhawuk, 및 Gelfand(1995)가 개발하고, 김기범(1996)이 표준화 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 16문항, 집단주의 16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개인주의 Cronbach's  $\alpha=.69$ , 집단주의 Cronbach's  $\alpha=.80$ 으로 양호하였다.

#### 태도 중요도 측정

태도 중요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의 측정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되어왔다(Boninger, Krosnick, & Berent, 1995).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중요도 측정문항들(Krosnick, 1988, 1989)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태도 대상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조건 별로 태도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 중요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예: 음료수를 마실 때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친구의 음료수를 골라주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통 법규의 준수와 위반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 실험절차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실험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성향수준을 측정하였고, 온라인 사전 조사 시행 4주 후 연구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와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실험은 자유선택 패러다임(free-choice paradigm)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방식은 인지부조화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실험 방법 중 하나로 Brehm(1956) 등의 초기 인지부조화 연구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것의 부정적 측면과 선택하지 않은 것의 긍정적 측면에 의해서 부조화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본인, 친구, 교통법규 등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한 Hoshino-Browne 등(2005)이 사용했던 자유선택 패러다임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10개의 태도대상(음료수 또는 교통법규)에 대해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순위를 매기도록 요구받았는데, 1차 순위선정 이후에는 선호도 상 5위와 6위로 선정된 두 개의 대상 중에 하나를 직접 선택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2차 순위선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인지부조화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실에 도착한 실험참가자들은 허위로 제작된 실험목적에 대한 지시문을 제시받았다. 본인 조건의 지시문은 “본 조사는 한 음료회사에서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선호도 조사입니다”로, 친구 조건의 지시문은 “본 조사는 사람들이 평소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알아보려고 실시합니다”로, 교통법규 조건의 지시문은 “본 실험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대학생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에 대한 조사입니다”로 각기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 후 참가자들은 각각 컴퓨터 실험 부스로 이동하여 미디어랩(MediaLab)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순위선정 과제를 수행하였다. 순위선정 방법을 익히는 간단한 연습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각 참가자들의 컴퓨터에 10개의 선호순위를 선정할 대상이 주어졌다. 본인 조건과 친구 조건은 10개의 음료수의 선호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교통법규 조건은 교통법규의 지지순위를 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인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주어진 음료수 10개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였고, 친구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주어진 음료수의 순위를 정하기에 앞서 실험을 하면서 떠올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도록 하고, 10개의 음료수를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순서대로 정렬하도록 하였다. 교통법규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주어진 10개의 교통법규들을 자신이 지지하는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이렇게 1차 선호순위 측정을 마친 후에 참가자들은 잠시 프로그램을 멈추고 컴퓨터 부

스 밖으로 나온 다음, 조건에 따라 실제 선택 행동을 하도록 유도되었다.

본인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실험에 참여해 준 보답으로 받게 될 음료수 하나를 고르게 되었다. 이 때, 그들은 두 개의 음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음료수는 사실 1차 순위배정에서 참가자가 5위와 6위로 선택한 것이었다. 10개의 대상 중 5위와 6위를 선택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특별히 선호하거나(1, 2위..) 싫어하지(10, 9위..) 않는 중간의 선택대상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첫째, 태도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선택과 (이에 따른) 포기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둘째, 2차 순위선정에서 본인의 1차 순위선정의 내용을 기억하여 순위를 선정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험을 마친 후 물어봤을 때에도 이를 알아 채 참가자는 없었다.

친구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실험에 참여해 준 보답으로 친구에게 보낼 음료 기프트콘을 하나 고르게 되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1차 순위배정에서 5위와 6위로 선택했던 음료 둘 중 하나의 기프트콘을 선택 하였으며, 선택한 기프트콘은 참가자의 이름으로 그 친구에게 보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교통법규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음 한 달 동안 실시할 특정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캠페인 실시의 대상이 될 교통 법규를 고르게 되었다. 이 때 제시된 두 가지 교통법규 역시 참가자들이 1차 순위배정에서 5위와 6위로 선택한 것들이었다.

양자택일 과제를 마친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적고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이 설문은 다시 실험부스로 돌아가 2차 순위선정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과 선택행동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실험참가자가 다시 실험 부스 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연구자는 미리 컴퓨터 모니터 옆에 1차 순위선정 때 주어졌던 10개의 음료수(또는 관련 교통법규표지판)를 갖다 놓았다. 이는 2차 순위선정을 다시 하는 이유(실물을 보면서 순위를 매겨보는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참가자들은 1차 순위배정 때와 동일한 형태의 순위선정 과제를 실시하였다.

2차 순위선정에서 실물을 보며 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는 특정한 형태의 순위 변화를 초래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순위배정과 2차 순위배정에서 아이템의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부스 밖에서 5위와 6위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자택일 시에 선택한 음료수 혹은 교통법규의 순위가 1차에 비해 2차 순위배정에서 높은 순위로 올라가고, 선택하지 않은 아이템의 순위가 낮은 순위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인지부조화의 발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차 순위배정까지 마친 후에,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태도 중요도(attitude importance)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본인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음료수를 마실 때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라는 질문을, 친구 조건의 참가자에게는 “친구의 음료수를 골라주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라는 질문을, 교통법규 조건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교통법규의 준수와 위반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

한 일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모든 실험절차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이 본 실험의 목적을 유추해냈는지 확인하였고, 처음에 제시한 실험 목적이 허위였음을 알려주고 실제 실험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를 설명(debriefing)하는 것으로 실험을 마무리 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1차 순위배정과 2차 순위배정을 반복 측정하여 1차 순위배정에서 5위와 6위로 한 순위 차이를 보였던 두 아이템이 2차 순위배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순위 변화를 갖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태도변화 정도를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인지부조화 유발 조건 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과 태도 중요도, 태도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건별로 인지부조화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 방법을, 그리고 조건별로 문화적 가치성향, 태도 중요도, 그리고 태도변화의 크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Sheffe 사후검정(post hoc)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변화에 미치는 문화적 가치성향과 태도 중요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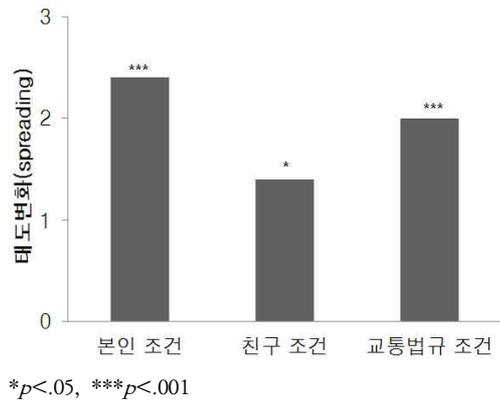


그림 1. 조건별 인지부조화 발생 확인

### 인지부조화와 태도변화의 여부

인지부조화 경험에 의한 태도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순위배정에서 5위와 6위였던 두 아이템의 순위 차이가 2차 순위배정에서 유의미하게 변하였는지의 차이증가(spreading)를 각 조건별로 살펴 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본인 조건( $t=53.65$ ,  $p < .001$ )와 친구 조건( $t=7.86$ ,  $p = .01$ ), 교통법규 조건( $t=26.21$ ,  $p < .001$ ) 모두에서 1차 태도(5, 6위로 동일)와 2차 태도(선택한 아이템의 순위가 올라가거나, 포기한 아이템의 순위가 내려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인지부조화가 나타나며, 인지부조화 경험에 의한 태도변화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 실험조건 간(본인, 친구, 교통법규 조건) 비교

인지부조화 유발 조건 별로 각 변인들의 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단 표 1과 같이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있어서 조건 간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어서 집단 간 비교를

표 1. 실험 조건별 평균분석 결과

	본인 조건 (N=20)	친구 조건 (N=20)	교통법규 조건 (N=20)	F
개인주의	4.68 (.83)	4.68 (.54)	4.53 (.85)	.34
집단주의	4.74 (.80)	4.81 (.87)	4.36 (.58)	2.14
태도 중요도	7.35 (1.23)a	4.65 (1.50)b	7.30 (1.53)a	23.59***
태도변화	2.40 (1.47)	1.40 (2.23)	2.00 (1.75)	1.49

주 1. 태도 중요도의 a, b는 Sheffe 사후검정 결과

주 2.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  $p < .001$

위한 변인 통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차이를 예상했던 태도변화에 있어서도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태도 중요도에서만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3.59$ ,  $p < .001$ ),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본인 조건과 교통법규 조건이 높은 수준의 동일 집단으로 나타나, 친구를 위한 선택에 비해 개인과 규범에 관련된 선택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태도변화와 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은 태도변화 정도와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 $r = -.28$ ,  $p < .05$ )을 보였으며, 태도 중요도는 태도변화 정도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 $r = .41$ ,  $p < .01$ )을 나타냈다. 이는 개인이 기본적으로는 집단주의 성향을 높게 가질수록 인지부조화를 적게 경험하여 태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 개인주의	1			
2. 집단주의	.40**	1		
3. 태도 중요도	-.07	-.17	1	
4. 태도변화	-.10	-.28*	.41**	1

\*  $p < .05$ , \*\*  $p < .01$

도변화가 적게 일어남을 의미하고,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인지부조화 유발 조건에 대한 태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인지부조화를 크게 경험하여 태도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태도변화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

상관분석에서 기본적으로 관계가 확인된 각 변인들이 순위배정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는 .84이상, VIF는 1.22이하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표 3. 순위선정 태도변화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	$\beta$	t
개인주의	.00	.00	.03
집단주의	-.07	-.20	-1.56
태도 중요도	.37	.38**	3.15
Adj R <sup>2</sup>		.17	
$\Delta R^2$		.21	
F		5.00**	

\*\*  $p < .01$

결과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총 태도 변화량의 21%( $F=5.0, p<.01$ )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은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지니지 않았으나 태도 중요도는 순위배정 태도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 p<.01$ ). 상관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집단주의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집단주의의 영향력 중 태도 중요도의 영향력과 중복되는 부분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논 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의 인지부조화 발생에서 나타나는 동서양의 차이를 문화 요인으로 직접적이고 피상적으로 설명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태도 중요도라는 심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제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문화 차이가 확인되었거나, 최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 차이가 예상되었던 세 가지 실험상황 모두에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였으며, 세 조건의 태도 변화 크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부조화가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와 같은 문화가치관(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Triandis, 1989)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한국사회에서 조건별로 태도변화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에 근거한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본인 조건에 비해서 친구 조건이나 교통법규 조건에서 인

지부조화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비교 문화적 예상과는 달리 세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치만으로 본다면 친구 조건에 비해서 본인 조건이나 교통법규 조건에서 더 높은 태도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중요도의 평가에서도 역시 본인조건과 교통법규 조건에서 더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문화성향에 비추어 본 연구의 참가자들도 개인주의에 비해 집단주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빚나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사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측정했던 참가자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분석해 본 결과, 개인주의(7점 척도에서  $M=4.70, SD=.552$ ) 성향과 집단주의(7점 척도에서  $M=4.76, SD=.657$ ) 성향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한국사회의 변화, 특히 한국대학생의 문화 가치관의 서구화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류승아, 2010; 이종한, 2000). 한국대학생들은 기존의 집단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구적인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게 띠는 측면에서, 한국대학생들이 개인적 상황, 관계적 상황, 규범적 상황 모두에서 강한 인지부조화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태도 중요도의 역할을 확인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인지부조화의 발생에 있어서 태도 중요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특정 상황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커졌다. 반면 문화가치 성향은 집단주의에 한해서 상관에서는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확인되었지만, 회귀분석에서는 태도 중요도와 공유하는 효과의 크기가 제거되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태도 중요도는 인지부조화와 태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화적 성향을 그 영향력이 작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태도변화에 있어서 중요도의 효과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인지부조화 발생의 문화 차이를 문화 가치(자기관)로 설명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자기관을 사용하여 인지부조화의 차이를 설명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기호와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반대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집단과 관련된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도 중요도에 의한 인지부조화의 설명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심리적 기제에 접근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인지부조화와 문화적 가치성향, 그리고 중요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부조화는 문화적 자기관에 따른 가치부여의 문제이고(Hoshino-Browne et al., 2005),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동,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보다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적인 가치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집단적인 가치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 인지부조화가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태도 중요도에 의해 태도변

화를 설명하는 기능적 관점(functional theories. Katz, 1960; Kelman, 1961; Smith, Bruner, & White, 1956)과도 일치한다. 즉, 인간의 행위는 본인의 필요(needs) 충족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풀이할 수 있는데, 인지부조화는 어떤 문화권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가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태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공부정사건에 있어서의 인지부조화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Heine & Lehman, 1997),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선택 상황에서의 문화적 차이(Hoshino-Browne et al., 2005), 인종에 따른 인지부조화의 차이(Hill, 2005)와 같이 인지부조화 연구들 중 특수한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율성이 인지부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전적 연구결과(Festinger & Carlsmith, 1959)에 대해서도 모순 없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태도 중요도의 의미는 기존의 연구방식에서의 주된 설명논리였던 문화적 가치성향이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화적 가치성향은 주로 동서양의 심리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으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여 자기지각, 귀인, 정체성, 인지, 감정 등 심리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영역들에 대한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 가치성향 또는 문화적 자기관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인지부조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가 어렵고, 상황이 자기관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측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 Bond와 Whang(1986)은 문화비교에 있

어서 이론적 틀의 규정 없이 행위의 차이를 단순히 문화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무이론적이고 성과가 의심스럽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태도 중요도라는 변인에 의해 심층적인 심리적 기제를 고려하는 것은 인지부조화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설명이 더욱 용이해진다.

또한 인지부조화의 전반적인 심리적인 과정을 검토해 보더라도 태도 중요도는 인지부조화의 문화차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지부조화의 동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지부조화는 자기확인(self-affirmation)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와 관련되어 있으며(Hoshino-Browne et al., 2005), 환경과 자기(self)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현상이다. 즉, 인간은 현재의 상황과 기존의 태도라는 두 가지 가능성 중 더 바람직한(desirable)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Brehm, 1956). 따라서 인지부조화는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인간의 절대적인 과제를 다루는 심리현상인 만큼 특정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가 인지부조화의 문화차 설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들에서 동양인들에게서 인지부조화가 관찰되지 않거나 인지부조화가 적게 관찰된 연구들은 동양인들에게 의미가 적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인지부조화의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실험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원실험에서 사용된 상황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태도를 대상으로 한 인지부조화 상황을 조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밝힌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태도 중요도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이 가지는 종합적 사고(변화가능성의 인정)나 상대적으로 낮은 일관성 동기와 같은 요소의 효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문화적 가치성향이 태도 중요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유형(분석적-종합적 사고)과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태도 중요도는 사안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태도 중요도와 사고유형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집단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이 태도 중요도를 높여서 인지부조화를 강화하겠지만, 동시에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부조화 수준으로 인해 최종적인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집단주의 태도변화의 크기와는 부적상관이 확인되었는데,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동일한 중요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인지부조화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적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인지부조화에 있어서 문화와 태도 중요도의 역할을 밝히기에는 본 연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후연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부조화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성향과 태도 중요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태도변화의 나머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태도 중요도가 문화적 가치성향이 태도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매개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성향과 태도 중요도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가치를 표상(개인, 집단, 규범)하는 각 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표본으로부터 응답자료를 수집하여 각각의 조건 내에서 문화적 가치성향과 태도 중요도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가치나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변인인 태도 중요도의 성격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자세히 밝히지 못하였다. 인지부조화에 있어서 태도 중요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인지부조화 상황에서 태도의 중요도에 따라서 태도변화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따라서 태도변화의 크기가 항상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요도가 커질수록 상황에 대한 지각은 커지지만, 그만큼 태도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요도의 크기에 따라 태도변화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중요도가 너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인지부조화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도가 높은 수준에서는 자신의 기존 태도에 대한 기억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치나 태도의 경우 이를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지각하는 중요도의 수준이 아닌 객관적인 중요도 수준의 변화에 따른 인지부조화 현상의 양태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중요도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부조화가 특정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인 현상이며, 표면적으로 문화적 가치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 변화에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내재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를 불문하고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하여,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Spencer, Josephs, & Steele, 1993; Steele et al., 1993). 즉, 사람들은 수 없이 많은 경험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승아 (2010).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69-183.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201-219.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허태균 (2005). 무법으로 태어나 준법을 거쳐 위법으로 성장하는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17-131.
- Abelson, R. P. (1988). Convic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67-275.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

-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798-844).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 Bem, D. J., & McConnell, H. K. (1970). Testing the self-perception explanation of dissonance phenomena: On the salience of premanipulation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23-31.
- Bem, D. J. (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6, pp.1-62). New York: Academic Press.
- Bond, M. H., & Whang,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Bond (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pp. 213-266).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lanton, H., Pelham, B. W., Dehart, T., & Carvallo, M. (2001). Overconfidence as dissonance redu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373-385.
- Boninger, D. S., Krosnick, J. A., & Berent, M. K. (1995). Origins of attitude importance: Self-interest, social identification, and value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61-80.
- Brehm, J. W. (1956). Post-decision changes in the desirability of choice alternat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84-389.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49-960.
- Collins, B. E., & Hoyt, M. G. (1972). Personal responsibility for consequences: An integration and extension of the "forced compliance" litera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558-593.
- Cooper, J. (2007). *Cognitive dissonance: Fifty years of a classic theory*. Los Angeles: Sage.
- Cooper, J., & Brehm, J. W. (1971). Prechoice awareness of relative deprivation as a determinant of cognitive disson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571-581.
- Cooper, J., & Fazio, R. H. (1984). A new look at dissonance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 pp.229-266). New York: Academic Press.
- Fazio, R. H. (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75-109.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estinger, L., & Carlsmith, J. M. (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203-210.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oethals, G. R., & Cooper, J. (1972) The role of intention and postbehavioral consequences in the arousal of cognitive disso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93-301.
- Harris, V. A., & Tamler, H. (1971). Reinstatement of initial attitude and forced-compliance attitude chang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4*, 127-134.
- Heine, S. J., & Lehman, D. R. (1997). Culture,

- dissonance, and self-affi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389-400.
- Heine, S. J., &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ill, D. M. (2005). *Race and cognitive dissonance: The role of double-consciousness in the experience of disson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rinceton University.
- Hiniker, P. J. (1969). Chinese reactions to forced compliance: Dissonance reduction or national characte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7, 157-176.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lbrook, A. L., Berent, M. K., Krosnick, J. A., Visser, P. S., & Boninger, D. S. (2005). Attitude importance and the Accumulation of attitude-relevant knowledge i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749-769.
- Hoshino-Browne, E., Zanna, A. S., Spenser, S. J., Zanna, M. P., & Kitayama, S. (2005). On cultural guises of cognitive dissonance: The case of Easterners and Wester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294-310.
- Hur, T., Roese, N. J., & Namkoong, J. E. (2009). Regrets in the East and West: Role of intrapersonal versus interpersonal norm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51-156.
- Katz, D.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 Kelman, H. C. (1961). Processes of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5, 57-78.
- Key, V. O. (1961). *Public opin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Knopf.
- Kitayama, S., Snibble, A. C., Markus, H. R., & Suzuki, T. (2004). Is there any "free" choice?: Self and dissonance in two cultures. *Psychological Science*, 15, 527-533.
- Krosnick, J. A. (1988). Attitude importance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240-255.
- Krosnick, J. A. (1989). Attitude importance and attitude access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297-308.
- Modigliani, A., & Gamson, W. A. (1979). Thinking about politics. *Political Behavior*, 1, 5-30.
- Petty, R. E., Cacioppo, J. T., & Haugtvedt, C. (1991). Ego-involvement and persuasion: An appreciative look at the Sherif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self-relevance and attitude change. In D. Granberg & G. Sarup (Eds.), *Social judgment and intergroup relations: A Festschrift for Muzifer Sherif* (pp.147-174). New York: Springer-Verlag.
- Peng, K., & Nisbett, R. E.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 741-754.
- Simon, L., Greenberg, J., & Brehm, J. (1995). Trivialization: The forgotten mode of dissonance re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247-260.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mith, M. B., Bruner, J. S., & White, R. W. (1956). *Opinion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Spencer, S. J., Joseps, R. A., & Steele, C. M. (1993). Low self-esteem: The uphill struggle for self-integrity.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21-36). New York: Plenum Press.
- Steele, C. M., Spencer, S. J., & Lynch, M. (1993). Self-image resilience and dissonance: The role of affirm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85-896.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l: Westview Press.
- 논문 투고일 : 2013. 1. 21  
1차 심사일 : 2013. 2. 6  
게재 확정일 : 2013. 2. 27

## The Role of Attitude Importance in Cultural Variations of Cognitive Dissonance

Sangyeon Yoon      Shinhwa Suh      Hyunjeong Kim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recent findings proposed and found that people from Eastern cultures could experience strong cognitive dissonance only when certain conditions, such as other-related choices, normative attitudes, were fulfilled. Even though such interesting findings are intuitively convincing on the basis of common understanding of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cultures,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cultural variations of cognitive dissonance remain untested.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ole of attitude importance in cognitive dissonance by using the free-choice paradigm. After completing a pretes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s, 60 college students ranked their preference to 10 items of either beverage or traffic regulations twice. Between the two ranking tasks, they were asked to engage in behavioral selection among their 5<sup>th</sup> and 6<sup>th</sup> preferred items. They also rated the personal importance of the preference. The results showed that attitude import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change and it could play a major role in experiencing cognitive dissonance beyond cultural orientation and situational factors. The current findings were discussed in universality of cognitive dissonance across cultures.

*Key words* : cognitive dissonance, cultural perspectives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itude importance